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세기말 영국을 비추는 다층적 거울

황 정 현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

[국문초록]

오스카 와일드는 사실주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그의 문학 세계가 가진 미학적 현실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소설을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그의 문학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사회 비평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문학의 사회 비평성은 와일드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세기말 영국의 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소설의 내연적 범위 내에서 논할 수 있는 그의 현실 인식과 그것이 소설에서 표현된 양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의의 두 번째 주요한 측면은 와일드의 문학 세계와 그가 연루된 1895년의 소송을 되짚어 봄으로써 소설과 19세기 법의 문화사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그의 소설이 문학 외연에서 지닐 수 있는 정치적, 사회 비평적 성격에 대해 논해보는 것이다. 이 논의는 기존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연구에서 다소 미흡했던 학문간 융합적 연구의 시도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학적, 역사적, 법의 문화사적으로 다층화된 소통적 연구의 시각으로 와일드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해 볼 때 기존의 심미주의적 해석의 지배성에 가려져 간과되었던 그의 문학의 현실 비판적 측면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설득력 있게 논의될 수 있다.

주제어: 사회 비평성, 미학적 현실성, 제국주의, 전복적 위트, 다층적 연구

I. 서론

와일드(Oscar Wilde)의 문학이 지닌 현실 비평적 측면을 해석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의 유일한 소설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의 서문에서 “19세기의 사실주의에 대한 혐오는 칼리반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와일드는 현실 반영적 예술을 추구하는 작가적 모습을 거부한다. 이 유명한 서문은 그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방한 심미주의자의 대변인임을 그대로 나타내듯, 문학적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예술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강조로 가득 차 있다. 이렇듯,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서문에서부터 와일드는 작가를 “아름다운 것의 창조자”로 정의하며 현실을 비추는 문학 창조 방식에 대해 거리감을 두 듯 어필하였다.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거짓말의 부패」(“The Decay of Lying”)에서 더욱 강도를 높게 하여 또한 빈번하게 언급된다. 그가 「거짓말의 부패」에서 “예술이 인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예술을 모방해야 한다”를 선언했을 때(182), 이것은 작가로서 현실에 관한 사실주의적 묘사를 거부하는 극명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실주의를 “시끄러운 주장들”(「거짓말의 부패」 180) 혹은 예술가들이 “깨부수고 나가야 하는 감옥”(「거짓말의 부패」 180)이라고 까지 표현하며 사실주의를 예술의 창조에 있어 기피 해야 하는 구태의연한 예술사조로 치부한다. 이렇듯 작가 스스로가 현실에 관한 사실주의적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어조를 늘 유지했기에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해 해석해 보고자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는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 소설의 대표적인 현실적 측면은 그것이 자기 고백적이라는 점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은 급

속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의 발달을 경험하지만, 이후 후반기 제국의 종말과 경제적 쇠퇴의 후유증을 겪으며 세기말적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동성애는 19세기 말 영국의 내적 불안을 가중시킨 요인”(원유경 181)이라는 사회적 지탄에 휩싸이게 된다. 1895년 오스카 와일드는 연인 알프레드 더글라스 경(Lord Alfred Douglas)의 아버지와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그의 동성애 성향과 소설은 19세기의 법과 사회의 보수적 가치관 하에서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의 논란의 대상으로 놓이게 된다. 소설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에 동성애적 관계가 있다고 명명백백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남성 인물들 간의 동성애적 관계가 존재함을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와일드는 암시하고 있고, 이것은 당시 영국의 ‘세기말 시대상’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담한 소설적 표현이자 고백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자기 고백적이면서 사회 비평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일체 전무 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그에게 심미주의를 전수한 스승, 페이터(Walter Pater)는 「오스카 와일드 씨의 소설」(“A Novel by Mr. Oscar Wilde”)에서 이 소설에 만연한 “냉소”(37)에는 “사회 비평적 스케치”(36)가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와일드의 문학 세계가 가진 ‘전복적 위트’를 주시한 현대의 비평가 이글턴(Terry Eagleton)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논문에서 먼저 다루고자 하는 바는 도리안 그레이를 위시한 소설의 여러 인물들에 투영된 오스카 와일드의 앵글로 아일랜드인(Anglo-Irish)으로서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정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제국주의 비판의 해석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이와 더불어 그의 소설의 표면적 이야기의 저변에 존재하는 와일드의 정치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뤼켈미(John Paul Riquelme)가 주목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고딕 구도 안에 담긴 영국 제국주의 담론은 현실 비판적 함의가 심미주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Scheible 132). 와일드의 심미주의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는 알레고리화된 그의 소설의 역사성에 대한 성격 규명에 앞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를 아일랜드 인으로써 바라보는 시각이다(Killeen 424). 아일랜드 작가로서의 그의 면모에 주목하는 학자들로는 코클리(Davis Coakley), 에드워즈(Owen Dudley Edwards), 키버드(Declan

Kiberd), 맥콜멕(Jerusha McCormack), 파인(Richard Pine), 그리고 업처치(David Upchurch)의 다수가 있다(Haslam 267). 또한, 최근 논문 중에서 아일랜드의 국교인 카톨릭 의식주의(Catholic Ritualism)에 매료된 와일드와 그것이 소설에 표현된 양상에 대한 연구(McQueen 866), 19세기 말 아일랜드와 영국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움직임들과 사회 활동들이 활발했던 시기에 와일드가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던 글이나 개인적 편지 등에서 드러나는 아일랜드인으로서 면모에 관한 연구들도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 지평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Clayworth 252).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과 논문들의 주된 주장에 동의하며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위시한 그의 문학 세계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파편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의 현실 인식의 일관성이다. 즉, 그의 문학의 현실 반영성, 와일드의 심미주의 형식에 포장되어있는 그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을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예시들을 통해 시도해 보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했지만, 영국 신사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동경하고, 런던에서 극작가로서 성공하고자 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복잡한 정체성 혹은 그 이중성이 소설에서 다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제국주의적 담론을 통해 이 논문의 본문에서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1895년 오스카 와일드 재판(*Regina v. John Douglas*)과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한 상관성 연구가 제시하는 19세기 법과 문학의 역사적 측면에 대해 다루어 봄으로써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관한 소설 연구가 기대할 수 있는 외연적 정치성 읽기의 가능성을 이 논문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의 재판과 소설을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 소설이 가진 현실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오스카 와일드의 손자, 홀랜드(Merlin Holland)가 20여 년간의 자료 조사 끝에 정리한 『오스카 와일드 재판의 진실』(*The Real Trial of Oscar Wilde*)이 출판되면서 법과 소설의 연관성 측면에서 그의 인생과 소설을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 이 책은 1895년 4월 3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와일드 재판

의 완전한 재판문을 최초로 정리한 것으로 오스카 와일드가 퀸스베리 후작(The Marquis of Queensberry)을 상대로 시작한 명예훼손 소송의 시작과 이 재판들의 과정에서 그가 오히려 ‘사회적 불명예 죄’(Acts of gross indecency)라는 죄목에 연루되어 패소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법적 문서와 당시의 정황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출판 이래 영미권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연구에 있어 소설과 재판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는 경향은 더욱 활발해진다.

완(Marco Wan)은 1895년 와일드의 재판문을 하나의 문학적 텍스트로 보고 와일드의 문학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709). 또한, 카플란(Morris B. Kaplan)은 와일드의 재판 이후 신문과 대중의 반응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과 문학의 상관성이 보여주는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 측면에 주목한다(114).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이순구의 「유미주의 문학과 와일드의 1차 재판」이 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연구한 국내 학자들의 최근 논문에도 와일드의 재판에 대한 언급이 있다(정명희 209; 조애리 173-74).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소설이 가진 외연의 영역보다는 내연적 분석에 더욱 충실한 면모를 보인다.

이 논문의 도전은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한 대표적 작가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심미주의에 담긴 현실 반영성을 소설의 내연 그리고 외연적 측면 모두에서 조명한다는 점이다. 즉, 소설이 심미주의적 스타일에 감춰진 정치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와일드의 제국주의 비판 담론의 함의임에 대해 논하는 것이 소설 내연적 현실성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 작가의 그 현실 비판적 함의를 읽은 19세기 보수적 영국 법이 이 소설의 출판을 막고자 했던 것은 결국 빅토리안 영국성(Victorian Englishness)과 저항적 아일랜드성(Irishness)의 충돌이었다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진 외연적 역사성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적 영역 안에서만 와일드의 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 지평을 뛰어넘어 학제간 소통적 연구를 통한 다층적 접근 방식으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와일드의 문학 세계가 지닌 사회 비평적 현실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II.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영국의 제국주의 초상

앵글로 아일랜드인(Anglo-Irish)으로서 오스카 와일드의 정체성은 복잡한 이중성을 가진다. “그는 신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죽을 때까지 가톨릭교회에 매료되었고, 그 어떤 아일랜드 출신 문인보다 더 성공적으로 잉글랜드 상류사회에 침투했지만, 결코 그것에 온전히 빠져들 수 없는 아일랜드성(Irishness)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다” (『슬픈 아일랜드』 219). 즉, 그의 아일랜드성이란 이렇듯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면모가 있다.

앵글로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와일드의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은 그의 부모세대에서부터 발견된다. 와일드의 어머니의 아일랜드성이 강한 글쓰기로부터 그가 어린 시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비평 중 혹자는 어머니의 아일랜드성이 와일드의 작품에 알레고리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 주장하기도 한다(Killeen 430). 그의 어머니는 “스페란짜”(Speranza)라는 필명으로 아일랜드의 서정적 전통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한편, 아일랜드가 영 제국에 남기를 바란 합방 주의자였던 남편의 영향이었는데, 1864년 오스카 와일드의 아버지, 윌리엄 와일드(William Wilde)가 의학에 대한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기사로 서임 되자, 기꺼이 “레이디 와일드”(Lady Wilde)라는 칭호를 받아들인다. 와일드의 문학에 나타나는 복잡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은 어쩌면 부모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혹은 앵글로 아일랜드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혼란스러운 이중적 정체성의 굴레”의 표현일 수 있겠다 (『슬픈 아일랜드』 222). 그의 아일랜드성은 개인적 혹은 문학적 성향에서 분명 스 위프트(Jonathan Swift)나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와 같은 작가들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한다. 하지만, 와일드에 대한 조이스(James Joyce)의 논평인, 「오스카 와일드: 살로메의 시인」 (“Oscar Wilde: The Poet of Salome”)에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성이 다분히 나타나는 그의 긴 이름—오스카 핀걸 오플레허티 윌스 와일드(Oscar Fingal O’Flahertie Wills Wilde)—를 모두 언급하며, “귀족성”을 닮으려 하는 “헛된 과장들”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의 이름에서 드러난다고 평한 바 있다(56). 이러한 조이

스의 언급은 와일드의 인생에서 비록 영국적 귀족성을 동경하는 그의 성향이 드러나지만, 그의 심미주의를 통해 드러나는 와일드의 문학적 아일랜드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은유로 이해할 수도 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첫 구절에 오스카 와일드의 복잡한 아일랜드성은 극히 문학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질은 장미 향으로 가득 찬 작업실로 **진한 라일락 향** 혹은 더욱 **섬세한** 분홍가시 꽃 **향기**가 열린 여름 바람을 타고 정원수들 사이를 지나 열린 문 사이로 흘러들어 왔다.

The studio was filled with the **rich odour of roses**, and when the light summer wind stirred amidst the trees of the garden, there came through the open door the **heavy scent of the lilac**, or the more **delicate perfume** of the pink-flowering thorn. (15, 필자 강조)

이 구절은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헨리 경(Lord Henry Wotton)의 옥스퍼드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바질(Basil Hallward)의 화실에 대한 묘사이다. 이 구절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묘사에는 헨리 경, 19세기 말 타락한 귀족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가 평소처럼 줄담배를 피우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채 바질이 그린 도리안의 초상화를 보고 있다(15-16). 순수한 예술에 대한 갈망과 추구, 그리고 그러한 예술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의 대상인 도리안을 찾는 것에 대한 환희와 감탄에 젖어 있는 예술가 바질의 이름이 주는 [아일랜드적] 녹색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소설의 첫 구절에 나타난 여름날의 상쾌한 향기들은 곧, 헨리 경의 존재가 상징하고 있는 이 “질은 [영국적] 장미 향”과 줄담배 연기에 압도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초상화의 주인공이자 영원한 젊음과 동시에 끝없는 파멸의 상징인 도리안이지만, 영국 귀족인 헨리 경은 마치, 화실을 가득 메운 “질은 장미 향”처럼 그 확고한 존재감으로 이 소설을 가득 채운다.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모두 “향기”로 똑같이 번역하기 쉬운 “질은 향기”, “진한 향기” 그리고 “섬세한 향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너무 진해서 다소 불쾌한 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단어, “향”(odour)이 영국성을 상징하는 꽃인 “장미”의 묘사에 사용된 점은 이글턴이 발견한 와일드의 아일랜드성, 즉, 이 소설에 존재하는 ‘전복적 위트’의 첫 번째 예시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글턴은, 『성인 오스카와 연극들』 (*Saint Oscar & Other Plays*)의 소개글에서 앵글로 아일랜드인으로서의 복잡한 와일드의 정체성과 성향에 대해 논하며 와일드를 “영국인이면서 아일랜드인이고, 상류층이면서 약자였고, 사교계 명사이면서 동성애자였고, 방종하면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칭하였다(5). 또한, 이글턴은 “옥스포드 단디이면서 흙내 나는 더블린 사람”(4)인 와일드의 그 이중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는 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사회 비평적 현실성”(3), 앵글로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들에서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양면적 사실주의, 풍자성, 환상성이 그의 “전복적인 위트”(4)와 함께 그의 작품에 녹아있다고 평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문학 세계와 그의 유일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글턴이 지적한 그의 이 복잡하고도 이중적인 정체성이 소설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글턴 역시 와일드의 문학에서 풍자적 환상성과 뒤엎힌 “전복적인 위트 속”에서 “철저한 사회 비평적 현실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철저한 사회 비평적 현실성”은 앞에서 언급한 헨리 경이 화실로 몰고 들어 온 듯한 “질은 장미 향”과 같은 강력한 영국성이 바질이 상징하는 녹색의 아이비와 같은 옅고 청초한 아일랜드성을 함몰시켰다는 해석의 복선을 제시하는 소설의 첫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와일드의 “전복적인 위트”는 헨리 경의 부인의 이름이 빅토리아인 점을 독자들이 알게 될 때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첫 만남에서부터 헨리 경의 유창하고 매력 있는 언술에 마음을 빼앗긴 도리안은 그와 만남을 더욱 갈구하게 되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다. 늦은 밤까지 오페라 관람이나 사교계 파티를 즐기는 헨리 경은 그날도 늦잠을 자고 있었고, 도리안은 먼저 나온 헨리 경의 아내, 레이디 헨리(Lady Henry)를 만

나 인사를 나누게 된다. 레이디 헨리는 그날 도리안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지만, 구면으로 느낀다. 남편이 도리안의 사진을 “열일곱 장”이나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며칠 전 오페라에서도 남편과 함께 관람을 나온 그를 목격했던 터였다(62). 그와 남편의 관계를 정확히 예측하지만, 남편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녀였으므로 빅토리아는 전혀 도리안을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잊지 말라는 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62).

그녀는 흥미로운 여자였다. 드레스는 마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분노로 디자인 되어 있고, 폭풍에 휩싸인 듯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의 그 열정을 절대 돌려받지는 못한 채, 늘 그것들을 그녀의 환상 속에 보관해 두었다. 그녀는 그림처럼 멋져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단정치 못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였고, 교회를 무척이나 열심히 나갔다.

She was a curious woman, whose dresses always looked as if they had been designed in a rage and put on in a **tempest**. She was usually in love with somebody, and, as her passion was never returned, she had kept all her illusions. She tried to look picturesque, but only succeeded in being untidy. **Her name was Victoria**, and she had a perfect mania for going to **church**. (62, 필자 강조)

위의 인용은 세기말의 영국의 귀족 생활상, 사교계의 면모에 대해 현실감 있으면서도, 심미적으로 풍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해석의 선상에서 위 인용을 읽을 때, 헨리 경의 부인의 이름이 빅토리아인 것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순 없다. “폭풍”이라는 ‘세익스피어적 어휘’, 영국의 제국의 팽창의 시기의 상징인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사용이 주는 알레고리적으로 현실적인 영국성의 환기이다. 빅토리아의 이미지에겐 뭔가 모를 분노와 허무함, 욕정에 목말라하는 흐트러짐이 있다. 실제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파탄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를 열성적으로 다닌다는 언급에서 영국이 기독교의 전파를 아일랜드의 정복, 더 나아가 제국 확장의 정치적

정당성의 표어로 삼았던 아이러니에 대한 “철저한 사회 비평적 현실성”이 전복적이면 서도 풍자적인 현실 자각적 위트로 표현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글턴이 와일드의 문학 세계를 해석하며 언급한 이 “철저한 사회 비평적 현실성”은 소설의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와 관련된 일화들과 관련하여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스카 와일드의 사회 비평적 역사의식에는 영국의 제국주의 비판이 녹아있다. 이글턴이 그를 “옥스포드 출신의 사회주의 프로토 해체주의자인 아일랜드인”(Irish Oxfordian socialist proto-deconstructionist)이라고 부를 때(3), 와일드에게서 발견되는 제국주의 비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감지할 수 있다.

자신이 처음으로 쓴 연애 편지의 수신자가 이미 죽어버린 시빌 베인(Sibyl Vane)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직접적인 이유가 자신이 매몰차게 내뱉었던 그녀의 연극적 무능함에 대한 언급 때문이었다는 추측은 도리안을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한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이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헨리 경이 그에게 준,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결국 도리안을 부패의 미학으로 인도하는 어떤 중독성 있는 비밀스러운 “책의 영향력”(149)에 빠지게 된다. 몇 년간 이 책의 영향에 취해 있던 그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관심사와 취미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에 와일드의 영국 제국주의 비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도리안의 새로운 관심사들을 제국주의 비평적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시도의 근거는 이 에피소드들이 가진 저항성 즉, 이글턴이 지적한 프로토 해체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런던 사교계에서도 엄청난 부의 상속자로 이름난 상류층 도리안 그레이가 “로만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155)은 전복적인 성격의 영향력을 가진 에피소드이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가 왜 저항적이고, 프로토 해체주의적이고, 또한 제국주의 비판적인가? 바로 종교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늘 예민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은 영국이 이 문제에 있어 상당히 공을 들인 협상의 결과였지만, 영국과 아일랜드의 합병 관계는 무력과 저항이 반복되며 많은 피와 희생이 따랐던 통합의 역사로 본다.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은 그들

의 가톨릭교를 영국 국교로 개종시킨다는 표면적 이유를 표방했고, 실제 역사에서도 1641년부터 1788년까지 영국에 의한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의 토지 몰수가 자행되었다. 18세기 말부터 아일랜드 역시 영국에 격렬히 저항했고, 수 세기간의 영국의 통치로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영국화 되었지만, 가톨릭 종교만은 짙은 아일랜드성을 유지하는 저항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1798년에 아일랜드에서 영국의 식민통치에 반발하는 대대적인 저항이 있었고, 이후 1800년 아일랜드가 영국에 완전히 합병된 이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출판된 19세기 말까지 카톨릭 종교를 기반으로 한 아일랜드성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영국에게는 영국국교회와 아일랜드의 카톨릭교 사이의 갈등이 큰 고민거리로 남게 되었다(『영국사』 36-38). 이러한 영국과 아일랜드간의 종교적 갈등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영국의 부유한 귀족 집안의 남성인 도리안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라는 소문이 런던의 사교계에 퍼졌다는 것은 전복적이며 ‘프로토 해체적인’ 일화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당시 1798년 아일랜드 대 반란 100주년을 맞아 많은 팜플렛과 강연들이 넘쳐나던 19세기 말의 아일랜드와 영국의 현실에 대한 와일드의 반응과 입장이 소설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리안의 로만 가톨릭으로의 개종에 대한 소문에 이어 소설은 “동양”에서 들여온 향수에 관한 연구에 도리안이 빠져 있음에 대해 묘사한다(156). 또한, 그가 자주 찾아가던 이국적인 공간에서 들려오는 음악들은 “미친 집시들의 거친 음악”, “노란색 술을 두른 튀니지인들이 연주하는 괴상하게 생긴 피리”가 들려주는 음악, “웃고 있는 검둥이들이 단조롭게 두드리는 구리 북소리” 혹은 “보라색 양탄자 위에 구부린 채 앉은 마른 몸의 터번 쓴 인도인”의 음악들로 19세기 영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지극히 “야만적인 음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156). 그가 이 이교도적인 음악들에 심취했을 때 서양문명의 대표적 클래식들인 “슈베르트의 우아함”, “쇼팽의 아름다운 슬픈 곡조”, “베토벤의 웅장함”은 전혀 그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156). 이는 “19세기 말 제국의 종말과 경제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서 식민지인의 유입”(원유경 181)과 함께 들어온 식민지의 이교도적 문화에 대해 영국인들이

저항하면서도 매료되고 있었던 사회현상을 심미주의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가적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기독교의 전파와 문명화를 기치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 3 세계로 세력을 뻗쳐 나갔지만, 결국 ‘어둠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듯한 타락을 경험하는 지배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심미주의적 역사의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와일드의 앵글로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역사의식과 영국에 대한 제국주의 비판은 그의 “보석에 관한 연구”에서 계속 이어진다(157). 도리안은 내면의 타락이 주는 허전함을 보석에 관한 심취로 채우려 하는데, 이때 언급되는 역대 영국 왕들이 자신의 왕관, 투구, 갑옷 그리고 말 안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많은 진주와 수백 개의 화려한 다이아몬드들에 대한 언급들(159)은 그 의미에 대해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언급된 여러 왕들 중에 헨리 2세(Henry II), 제임스 1세(James I), 헨리 8세(Henry VIII)는 12세기부터 시작되어 와일드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집필했을 당시인 19세기 말까지의 700여 년의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역사에서 아일랜드 정복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시기의 역대 영국 왕들 중 일부였다.

헨리 2세는 아일랜드를 침공하여 그 땅이 영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교황에게 자신을 아일랜드의 대 주군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1172년 교황은 헨리 2세의 청원을 들어줌으로써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 역사는 시작되었다. 헨리 8세가 지배한 튜더 왕조에 이르면 영국은 국제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아일랜드 지배에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간섭을 시작하며, 제임스 1세의 치세 동안 영국은 북아일랜드 식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영국 왕들이 사용한 화려한 보석에 대한 언급은 도리안 그레이가 자신의 내면의 씩어들어 감, 영혼의 타락을 감추려 한 자기 위안, 도피였다는 소설의 일차적 에피소드가 주는 강렬함으로 인해 그 역사 의식적 제국주의 비판이 복잡성과 이중성을 가진 와일드의 아일랜드성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면모가 있다. 와일드의 비평적 역사의식은 소설적 심미주의에 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낌표로 이어지는 다음의 냉소적인 언급들에서 조이스나 이글턴이 분명히 발견한 와일드의 ‘아일랜드성’이

문학적으로 어필되는 듯하다.

한때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 위풍당당과 장식이 주는 근사함!
죽은 자들의 사치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일이었다.

How exquisite life had once been! How gorgeous in its pomp and
decoration! Even to read of the luxury of the dead was wonderful. (160)

영국 왕들의 보석 치장에 관한 이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어휘 선택, 그리고 그 왕들이 모두 아일랜드 점령 혹은 통치와 관련된 영국 왕들이었다는 점은 그가 런던에서 활동하며 영어로 글을 쓰는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를 동경하고 그에 대한 모방과 언급을 좋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평소 “내 생각에는 아일랜드가 영국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들 비비안이 회상하는 아일랜드 고유어로 된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McCormack 87).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앵글로 아일랜드인으로 느끼고 경험한 복잡한 이중성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와일드의 아일랜드성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세기말 영국 귀족의 초상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에 대한 소설적 서사가 18세기의 영국의 현실,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생성 등의 수없이 많은 역사적 ‘이즘’(isms)을 설명할 수 있듯이 헨리 경이라는 이 개인은 19세기 말 영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와일드의 사회 비평의 소설적 표현이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서 헨리 경이 “나는 연극을 좋아한다. 그것은 인생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99)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극중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 표현에 대한 욕구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설에 나타난

“댄디적 연극성”(Powell 1)은 “전복적 현실성”(Powell 5)과 뒤섞여 이와 관련된 그의 풍자적 정치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귀족 댄디인 헨리 경은 부인과의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러 있다. 그는 “결혼이 가진 유일한 매력은 양쪽편 모두를 완전히 속일 기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18)이라 말하는데, 와일드는 이를 통해 빅토리아 시대가 가장 중시여기던 ‘진실과 성실의 가치들’(earnestness, moral responsibility, domestic propriety)이 세기말의 영국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그러나 현실감 있게 표현한다.

주안(San Juan)은 헨리 경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미묘함”이 “상징적 현실”로 소설에서 표현되고 있으며(64), 이 인물은 오스카 와일드가 “몽상가가 아니라 최고의 사회 풍자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증거”(63)라 해석한다. 헨리 경이 언제나 약속에 늦고, 오후 늦게나 일어나며, 부인을 뒤로하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갓 스무 살의 남성과 오페라, 저녁 식사, 여행을 함께하는 나태한 귀족의 생활상을 보일 때 우리는 소설이 지닌 그의 ‘존재의 정직성’을 통해 세기말 귀족의 타락상에 대한 은유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이 소설이 가진 비평적 현실 인식이다.

와일드는 헨리 경의 입을 빌려, 자신은 “문학에서 저속한 현실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혐오한다”(221) 라고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소설은 헨리 경의 존재 자체와 그가 내뱉는 말들이 가진 사회 비평적 풍자로 넘쳐난다. 페이터가 확인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사회 비평적 스케치”는 소설 후반부에 나오는 사냥 에피소드를 통해 가장 충격적으로 그려진다. 실수로 사람을 총으로 쏘고도,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을 걱정하기보다는 “왜 사람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오늘 사냥은 망쳤다”(230) 라며 하인을 나무라는 어처구니없는 귀족의 모습, 동료 귀족이 사냥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하며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징벌이 다가올 나쁜 징조라고 느끼는 도리안에게 헨리 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죽은 사람 잘못이야. 총구 앞으로 뛰어들면 어찌나? 게다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네. 제프리에게 좀 난감한 일이지 물론. 죽은 사람이 비난받지는 않겠지. 사

람들은 제프리가 제멋대로 총을 쏘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제프리는 아니야. 정확하게 쏘는 사람이지. 어쨌든, 더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네.”

“It was the man's own fault. Why did he get in front of the guns? Besides, it's nothing to us. It is rather awkward for Geoffrey, of course. It does not do to pepper beaters. It makes people think that one is a wild shot. And Geoffrey is not; he shoots very straight. But there is no use talking about the matter.” (231)

실수로 사람을 쏜 것이지만, 사람이 총에 맞은 일이, “난감한 일”이며, 총에 맞은 사람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휩싸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헨리 경의 모습을 그리는 와일드에게서 그가 귀족의 생활상의 일면에 대해 비평하는 심미주의적 현실주의자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지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와일드의 현실적 감각의 예민함이 소설에서 어떠한 사회 비평적 면모를 가지고 그의 탁월한 미학적 묘사와 함께 표현되었나에 관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소설가로서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베인(Vane)가족 에피소드를 통한 신사 계급 비판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다.

와일드는 평소 능란한 대화술과 귀족사회에 대한 동경, 그리고 무엇보다 거만한 멋쟁이 신사의 태도를 구현하고 있었다(풍케 26). 즉, 평소 그의 화려한 패션, 특이한 복장의 착용,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허례허식, 언술의 화려함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댄디, 혹은 댄디즘에 대한 그의 일상적 표현 방식이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댄디즘의 부작용 즉, 표면적 화려함만을 추구하기 쉬운 귀족적 생활이 주는 정신적 나태함에 대해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시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남성들은 주로 검은색 톤의 단일 색상의 정장을 입었으나, 와일드가 표방한 다양한 색상 의상의 댄디즘은 이러한 영국적 보수성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The Norton Anthology English Literature* 1748).

도리안은 미모의 연극배우 시빌 베인(Sibyl Vane)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 역시 도리안을 나의 “멋진 왕자님”이라 부르며, 환희에 젖어 있지만(79), 사실 그녀는 자살하기 직전까지 도리안의 이름도 모른 채 그녀의 이름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는다. 도리안은 시빌이 연극배우로서 셰익스피어의 여주인공들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그녀의 모습에 반해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한 그녀가 배우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잃게 되었을 때 차갑게 돌아서게 된다(107). 시빌이 도리안에게 붙인 애칭, “멋진 왕자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도리안의 댄디적 화려한 외모에 마음을 뺏긴 듯하다(86).

시빌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처럼 한때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어떤 신사’와 사랑에 빠져 시빌과 그녀의 한 살 터울의 남동생 제임스를 낳았지만, 그녀가 사랑한 그 ‘신사 남성’은 시빌의 어머니와 자신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된다. 젊은 시절 사랑의 상처가 남긴 이 트라우마의 결과로 시빌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 만큼은 꼭 ‘신사와 결혼하여 신분 상승이 주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어야 한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 난 그게 그 사람의 참 낭만적인 면모인 것 같다. 그는 아마 귀족일 것이야.” 제임스 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 잘 돌봐야 해요, 어머니,” 그가 소리쳤다, “잘 돌보시라구요.” “아들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시빌은 항상 내 보호 아래 있다. 이 신사분이 부자이면 네 누나가 그분과 교제 못 할 이유가 없어. 나는 그분이 귀족이라 믿고 있단다. 모든 외모에서 그런 분위기가 흘러. 시빌에겐 딱 맞는 결혼이야. 이 둘은 멋진 한 쌍이 될 것이야. 그분은 외모가 출중하신 분이야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본단다.”

“He has not yet revealed his real name. I think it is quite romantic of him. He is probably a member of the aristocracy.” James Vane bit his lip. “Watch over Sibyl, mother,” he cried, “watch over Her.” “My son, you distress me very much. Sibyl is always under my special care. Of course, if this gentleman is wealthy, there is no reason why she should not contract an alliance with him. I trust he is one of the aristocracy. He has all the appearance of it, I must say.

It might be a most brilliant marriage for Sibyl. They would make a charming couple. **His good looks are really quite remarkable; everybody notices them.**
(82-83, 필자 강조)

이렇듯, 시빌의 어머니는 도리안의 댄디적 외모에서 그가 귀족임을 확신하고 귀족이면 시빌과 결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와 누나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바라보는 제임스 베인은 비록 열여섯 살의 소년이지만, 도리안의 댄디적 외모가 풍기는 ‘귀족에 대한 기대’가 자신의 가족을 헤칠 수도 있다는 극히 현실감 있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의 제임스 베인이 가진 이 ‘현실감 있는 냉철함’은 ‘댄디적 외모가 주는 ‘귀족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 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와일드가 제임스 베인을 통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와일드가 현실에서 ‘댄디임을 자처하며 귀족의 생활을 동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빌 베인의 가족 일화를 통해 댄디즘은 개인적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의 한 표현이지만, 이 개인주의적 표현이 진실한 사랑, 무책임과는 구분 지어져야 한다는 그의 복잡하면서도 이중적이지만 이성적이면서 심미주의적인 사회 비평적 시각이 제임스 베인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도리안은 시빌 베인의 죽음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퇴폐적 취미에 심취하는데, 이와중에 마주치게 되는 제임스 베인과의 조우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선사하는 또 다른 긴장감이다. 제임스 베인은 시빌 베인과 도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튼 [도리안이] 누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그를 [찾아내] 죽여버릴 것이다”(87)라며 후에 있을 도리안과의 갈등에 대한 복선을 제시한다. 누나 시빌 베인이 사랑하는 이 ‘신사’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선원이 되어 해외로 떠나지만,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 누나가 그 정체 불명의 ‘신사’때문에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복수를 결심하고 그 ‘신사’를 찾아 헤맨다. 런던 외곽의 어느 허름한 술집에서 우연히 도리안과 마주친 제임스는 “오늘 밤 너를 죽일 것이니 회개하라”(217), 도리안을 죽이려 하는 순간, 누나가 죽은 지 십 팔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갓 스무 살의 외모의 도리

안을 보게 되고, 도리어 사과를 하고 그를 보내준다(218). 하지만,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제임스는 도리안이 ‘절대 늙지 않는 동안의 소유자’로 소문난 사실을 전해 듣고, 또 다시 그를 찾아 해매던 중 급기야 도리안의 사냥터까지 쫓아 오게 되고, 귀족 일행 제프리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에게 심미주의의 아름다움을 전수한 스승, 페이터가 일찍이 이 소설의 사실주의로 언급한 제임스 베인, 즉, 심미주의자 페이터조차 극찬한 와일드의 작가적 “다재다능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실적 애수”인 제임스 베인은 문학적으로 표현된 와일드의 어떠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나? (Waldrep 104)

제임스 베인의 도리안 그레이를 향한 분노, 그와 도리안 사이의 이 갈등 구도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누나를 죽음으로 내몬 남성에게 대한 복수, 그를 찾아 해매고, 그를 만나고, 그 복수의 대상은 구사일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리어 제임스 자신이 허무한 죽음을 맞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 애수적 구도에 대해 몇몇 비평들은 고딕적 저변에 존재하는 반-제국주의 담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Waldrep 106; Scheible 131). 즉, 도리안은 그의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영국 신사 계급이며 그러한 신사 계급이 런던에서 오페라와 파티 등을 즐기는 동안, 제임스는 죽는 순간까지도 선원 유니폼을 입은 채였던 해외 식민지 건설에 ‘헌신’한 노동계급 신분이었다.

제임스 베인과 도리안 그레이의 갈등 구도에는 귀족과 노동계급, 영국과 해외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이 두 세계의 대립이 승자와 패자의 갈등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국의 19세기 말 우울한 사회상에 관한 주제’가 투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리켈미는 고딕적 구도 안의 대립적 묘사에서 드러나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의 와일드의 “반-영 제국 정서”가 스며있다고 해석한다(Scheible 135).

제임스 베인의 죽음으로 도리안은 그와 십 수년간 지속한 지겨운 숨바꼭질 같은 도덕적 족쇄에서 풀려나지만, 자신이 또 한 사람의 ‘베인’(Vane)을 허무한 죽음으로 내몬 간접살인자라는 사실에 향락과 아편에 의지하며 더욱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노동계급인 제임스는 죽고 귀족인 도리안은 살아남았지만, 승자가 경험하는 이 지독한 패배감에 대해 영국을 위시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19세기 말 경험한 경제적

몰락, 해외 식민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비상식적 지배의 병폐가 영국 내부의 부패를 낳은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즉, 영국 귀족 도리안 그레이가 표현하는 승자로서의 타락과 패배는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알레고리화 된 기억, 식민지에서의 학살, 착취 그리고 아일랜드의 대기근에 대한 책임과 자책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영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일종의 소설적 책임 추궁이다. 즉, 와일드는 자신의 심미주의에 대한 추구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현실의 비판에 관여하는 현실주의적 함의를 고딕적 소설의 구도 안에 은유적으로 담기를 시도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사실주의 소설”(Waldrep 106)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적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IV. 세기말 영국의 법과 문학: 그 충돌의 초상과 오스카 와일드

이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내연을 넘어서 이 소설 외연, 즉, 오스카 와일드의 문학과 그의 인생이 당대의 법과 관계된 측면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소설의 컨텍스트가 지닌 사회 비평적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문학과 그가 연루된 1895년 오스카 와일드 재판이 당대의 법의 현실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19세기 영국 법의 문화사의 단면, 즉, 문학과 법의 충돌, 영국성과 아일랜드성의 충돌, 지배와 피지배의 충돌을 다층적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음에 대해서도 함께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이 논문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와일드의 문학 연구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심미주의 편파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그의 문학 혹은 그의 문학과 영국 당대 사회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사회 비평성에 관한 논의가 문학을 초월한 영역에서 재조명될 때, 와일드의 문학 세계가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 대해서도 이 장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앞서 논문이 계속해서 논의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반제국주의 소설적 비평성, 세기말 귀족사회에 대한 소설적 비평성은 와일드의 문학을 역

사적, 정치적 영역과 관련하여 논한 다층적 논의이다. 이 장에서는 이 다층적 논의를 소설과 법의 관계성 논의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와일드의 문학 세계가 보여줄 수 있는 사회 비평성의 의의를 찾고, 더 나아가 문학 비평이 학제간 연구를 관통시키는 중요하고도 능동적인 분야일 수 있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자한다.

19세기 법과 문학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법과 문학은 좀 더 현실적으로 양쪽의 세계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베이커(J. H. Baker)에 따르면 영국 보통법(Common Law)의 역사 기원을 정복왕 윌리엄(William Duke of Normandy)이 1066년 영국을 정복하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의 노르만 법이 아니라 영국의 기존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이 시기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14). 이 1066년이 영문학사나 영국사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대 영어와 영국 고대 역사의 시작점으로 여기는 동일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법과 문학이라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 사회적 힘은 영국 역사에서 유사하게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며 존재하는 동안 상호 협력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다.

영문학에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법과 문학의 연관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예는 아니다. 일찍이,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샤일록(Shylock)을 재판으로 처벌하는 과정이 이 극의 주인공들과 극을 보고 있는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때 16세기에 이미 영국에서 ‘재판’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념적 동의를 얻은 것이 문학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18세기 ‘소설의 발생’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19세기 소설이라는 장르가 활발히 꽃피었을 때, 이 중 많은 수의 소설들이 법을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더욱 흔해진다. 돌린(Kieran Dolin)에 따르면 19세기 빅토리안 시대에 수 많은 ‘법소설’(Law-novel)들이 있었고, 이 시대의 소설들 중 5편에 1편의 비율로 법의 소설적 표현을 담고 있다(4). 대표적 예로 영국 사실주의 소설 중에서, 디킨즈(Charles Dickens)의 『황폐한 집』(*Bleak House*)이 영국 법의 성문화를 추구하는 암시를 담고 있고, 콜린스(Willkie Collins)의 『흰옷 입은 여자』(*The Woman in White*)가 “증언식

서사”(testimonial narration, 5)의 성격을 가진 점도 이 두 소설을 일종의 법 소설들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즉, 소설이 법의 사회적 모습을 비추는 거울, 그 해석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매개체로서의 현실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면모가 있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거짓말의 부패」에서 찰스 디킨즈에 대해 “형편없는 법 행정의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을 일으키는 양심에 대한 주제에 짓눌려 있는 디킨즈”(175)라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황폐한 집』이 가진 법적 주제를 연상하게 한다. 심미주의자 와일드조차 디킨즈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현실적 문제들은 언급하고 고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였던 것임에 대해 그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대목이다.

「거짓말의 부패」에는 그의 현실 비평과 관련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견된다. 그는 이 글에서 현실이 예술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현실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현실을 예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현실 반영적 태도로 예술을 보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음의 법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문학적으로 현실을 비평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법관 학교를 대신해서 뭔가 추구받긴 할 테지. 괴변가들로서의 역할이 그들 자신에게 맡겨졌어. 그들의 가식적인 열정과 비현실적인 미사여구는 즐거움에 넘치지. 레온타인 학교를 갓 졸업하고도 더 나쁜 것을 더 좋은 원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그들은 마지못해 하는 배심원들과 씨름하며 고객의 무죄를 힘들게 받아내지. 그들의 고객이 완전히 무죄일 때조차 말이야. 그들은 문서의 보고를 받고, 선례에 호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No, the politicians won't do. Something may, perhaps, be urged on behalf of the Bar. The mantle of the Sophist has fallen on its members. Their feigned ardours and unreal rhetoric are delightful. They can make the worse appear the better cause, as though they were fresh from Leontine schools, and have been known to wrest from reluctant juries triumphant verdicts of acquittal for their

clients, even when those clients, as often happens, were clearly and unmistakably innocent. But they are briefed by the prosaic, and are not ashamed to appeal to precedent. (167)

이 부분은 오스카 와일드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방하며, 그것을 「거짓말의 부패」의 주제로 삼고 있지만, 그가 법, 선례, 변호사 등과 같은 현실적 주제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소적으로나마 그러한 주제들이 그의 문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앞 장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한 그의 문학의 현실의식 혹은 그의 정치성과 연관 지어 논의할 수 있는 와일드 문학의 사회 비평적 면모이다. 즉, 그의 문학에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일관성에 관해 주장할 수 있는 그의 심미적 정치성의 일례이다. 1891년 오스카 와일드는 퀸스베리 후작(The Marquess of Queensberry)의 아들인 귀족 청년 이자 옥스퍼드대 대학생인 알프레드 더글라스 경(Lord Alfred Douglas)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진다(Halland XVI). 이 친분은 향후 몇 년간 계속되고 두 사람의 우정 이상의 친분에 대해 불만을 느낀 아버지 퀸스베리 후작과 오스카 와일드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곧 1895년 두 사람 간의 소송이 시작된다.

1895년 오스카 와일드 재판(*Regina v. John Douglas*)의 결과는 와일드의 패소로 결론 지어진다. 소송의 시작은 와일드가 퀸스베리 후작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며 시작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와일드의 동성애 혐의로 인해 와일드의 2년간의 감옥행이 결정된다.

1885년 새로 개정된 형사법 개정안 11조(Criminal Law Amendment Act 1885 Section 11)에 의해 19세기 말 영국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와일드와 그의 연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의 동성애적 관계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았고, 상대편 퀸스베리 후작의 변호사 카슨(Edward Carson)은 와일드의 동성애적 성향을 밝히기 위해 그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계속해서 재판장과 배심원들 앞에 세우게 된다. 카슨은 자신이 소설에서 선택한 지문들을 법정에서 읽어 내려가며 이 소설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동성애적 성향은 법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며, 고로 이 소설을 쓴 장본인인 오스카 와일드 역시 부도덕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는 논리의 공식을 이용한다 (Holland 87-89; 95-96; 100-102).

그러나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변호사 카슨은 소설과 작가가 모두 부도덕하다고 연관 짓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설 속 화가 바질과 도리안의 관계에서 현실의 와일드와 그의 동성 연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의 관계의 유사성을 규명하려 애쓴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소설을 읽어 보면, 바질 보다는 헨리 경이 훨씬 더 오스카 와일드에 가까운 인물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 카슨은 법정에서 헨리 경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고 했던 면모가 있었을까? 필자는 그 이유가 변호사 카슨이 소설에서 헨리 경과 같은 귀족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내포하는 소설의 심미주의적 현실의식 즉, 앞 장에서 언급한 페이지의 “사회 비평적 스케치”, 테리 이글턴이 주목한 “전복적 위트”에 대한 확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이것은 귀족 헨리 경과 사회적 계급이 같은 자신의 고객, 퀸스베리 후작을 위시한 법정의 많은 ‘신사 계급’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대한 의식적 회피이다. 왜냐하면, 소설에서 헨리 경은 도리안에게 [동성애에 관한 책이라 추측 할 수 있는] 성격이 불분명한 “노란 책”(Yellow Book)을 선물하고, 이 책을 읽은 후 많은 다른 남성들과 동성애를 암시하는 관계를 맺는 도리안에 대한 묘사의 의미를 변호사 카슨은 분명히 이해했을 테지만, 그는 법정에서 헨리 경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꺼린다. 홀랜드가 정리한 재판문을 확인해 보면 변호사 카슨은 귀족 헨리 경보다는 예술가 바질과 도리안의 동성애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몰아간다(87-107). 그러나 실제 소설을 읽으면 바질은 도리안과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든 인물이다. 오히려, 소설에서 도리안의 동성애 관계를 질책하는 예술가 바질과 도리안의 관계와 현실의 와일드와 그의 연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의 관계의 유사성에 대해 강조하고 추궁한다(Holland 87-94). 이는 변호사 카슨이 귀족인 헨리경의 동성애 성향을 법정에서 계속 언급할 때, 세기말 블랙 메일(black mail)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었던 사실이 반영하듯, 상류층에게 번져나가고 있던 동성애 혹은 부적절한 관계의 향유의 증가, 그리고 헨리 경을 통한 와일드의 사회 비판성이 간접적으로 언급될 수 있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 대한 반증이다. 즉, 변호사

카슨은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인 당대 영국의 일부 상류층의 부패에 대한 사회 비판이 법정에서 언급되기를 원치 않았고, 이를 회피하면서 예술의 형태로 아일랜드성이 영국성에 저항하는 메타포를 지닌 이 소설을 부도덕으로 처벌해야 할 ‘저의’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다. 즉, 오스카 와일드와 가장 유사한 인물로 볼 수 있는 헨리 경에 대해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변호사의 변론 태도는 오히려, 헨리 경의 존재성의 함의, 그의 존재성이 품고 있는 사회 비평성을 더욱 명확히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오스카 와일드의 서구 사회의 비평 동향은 와일드의 재판문과 그의 문학 세계를 연관 지어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와일드가 『거짓말의 부패』에서 법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사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서는 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재판문과 그의 문학이 함께 연구되는 동향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디킨즈의 『황폐한 집』과 콜린스의 『흰옷 입은 여자』와 같은 영국 사실주의 소설들이 갖는 ‘법 소설’의 ‘유사 기능’을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의 재판과 소설을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설이 가진 현실적 성격을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19세기 법의 문화사적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학문적 소득이 있다.

와일드의 재판에 연루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앞에서 언급한 변호사 에드워드 카슨이다. 소설의 여러 페이지를 배심원들 앞에서 소리 내서 읽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열거하고, 이를 통해 와일드가 유죄라고 공격하며 결국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한 변호사 카슨은 와일드를 감옥으로 보내고, 그의 소설의 출판을 막는다. 변호사 카슨은 와일드의 재판 이전 와일드가 그의 시에 관해 논평을 쓰기도 했던 시인이자 사회 운동가 블런트(Wilfrid Scawen Blunt)가 반-영국 제국주의 활동 및 저작과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를 처벌한 영국 정부가 고용한 변호인단의 일원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아일랜드의 통치를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성격의 운동이 추진한 아일랜드 자치 정부 통치 법안(Home Rule Bill)에 반대했던 더블린 출신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다(Clayworth 254).

와일드는 2년간의 감옥 생활 이후 프랑스로 건너갔고, 다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로 돌아 오지 않은 채 작가로서 더 이상의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다. 즉, 빅토리안 영국성과 아일랜드적 저항에서 영국성은 승리했다. 이 승리의 중심에 변호사의 연설, 즉, 법적 서사의 창조력을 통해 일반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문학과 법의 상관성에 관한 이 유명한 일화는 19세기에 영국 법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변호사의 연설, 그 연설의 존재성이 문학을 억압했던 당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일례이다.

슈렘(Jan-Melissa Schramm)은 17세기 이래로 영국 법에서 강력히 존중되던 ‘사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다’(Facts speaking for themselves)라는 법적 통념은 1836년 ‘죄인 변호 법’(Prisoner’s Counsel Act)의 통과와 결과로 영국 보통법(Common Law) 법정엔 변호사의 “절대적 연설”(essential orality, 20)과 “설명의 영향”(rhetorical power, 21) 아래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 그녀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실과 증거를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증인들로부터 사실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들어 보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정은 이 사실과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마치 독서행위에서 독자들이 화자의 설명을 듣고, 범인의 유죄, 주인공의 무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30). 슈렘은 이러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벤더(John Bender)가 주장한 “변호사회” 즉, 19세기 영국의 법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 “전문가의 목소리”의 역할에 주목한다(55). 이러한 “변호사회”는 말 그대로 ‘사실’과 ‘증거’가 스스로 죄인의 결백함의 증명과 정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언변의 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연설이 갖는 힘이 막강해지면서 변호사는 마치 작가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창조하듯, 법정에서 하나의 법적 서사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는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와일드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즉, 그가 법의 이득을 위해 소설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와일드의 재판이 보여주는 19세기 법정의 “변호사회”의 면모는 19세기 법이 처한 특정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법이 문학, 특히 소설이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하였고 그 힘을 왜곡된 해석으로 제

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제국주의 비판, 피지배 계급의 저항을 영국 밖에서는 무력으로, 영국 내에서는 변호사의 ‘언술’을 통해 영국의 제국주의를 대변하고 그 저항과 비판을 잠재우고 무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19세기 법과 문학에 관한 해석은 다분히 21세기적 시각으로 19세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벤 이샤이(Ayelet Ben-Yishai)는 19세기 법의 보수적 면모를 영국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소 옹호하는 어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주장하기를, 법에 있어 19세기는 ‘선례’라는 법적 구조를 구축하며 영국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던 시기라고 하였다. 이때 벤 이샤이가 주목한 “판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7)이라고 부르는 영국 보통법의 안정성의 성격은 현재의 소송이 과거의 소송에 의해서 판단되고, 미래의 소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연속적인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선례 이성”(Precedential Reasoning, 3)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영국법의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법이 중요시한 가치들, 안정성, 연속성, 보편성은 빅토리안 사회로부터 적극적 신뢰를 얻었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사회 전반, 문화 전반으로 퍼져 빅토리안 더 나아가 현재의 영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19세기 법은 빅토리안 사고, 가치, 문화 중심적 영국성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는 중이었고, 이때 영국 내부의 일반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카슨과 같은 변호사의 언술은 절실했으며, 이 영국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성, 즉 피지배 계층들의 영국 비판은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어필하는 통로였고, 작가들은 여러 가지 알레고리와 은유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법은 변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 다양성 안에서 존재하는 빅토리안 영국적 정체성의 이면에 대한, 즉, 제국주의 비판 혹은 문학이 담고 있는 현실 비평을 읽어내며, 이 심미주의적 정치성을 부도덕으로 정의했다.

결국, 1895년 와일드의 재판과 문학의 함께 읽기는 영국 보통법이 주창하던 빅토리안 상식과 와일드의 문학이 주창하던 심미주의의 충돌, 법과 문학의 충돌, 앵글로 색슨적 단일성의 구축과 아이리쉬적 다양성의 인정에 대한 요구의 충돌, 지배와 피지배

의 충돌이라는 당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역사성 읽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물론, 19세기 당시, 법은 와일드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재판을 종결짓고 승리하였지만, 21세기의 오늘날 와일드의 문학을 통해 다시금 19세기의 영국의 법과 현실을 바라볼 때 더욱 객관적으로 당대의 현실과 법의 문화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와일드 재판의 일화로 19세기 영국의 법과 문학의 관련성, 이 소설의 문학적 정치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와일드의 문학적 현실성의 문맥과 관련지어 그의 재판 일화를 되짚어 볼 때, 그의 문학이 내연을 넘어 외연적으로도 ‘소설의 컨텍스트가 지닌’ 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에 대해 주장 할 수 있다. 이렇듯 와일드의 문학 세계의 가치는 그것의 안과 밖에서 동등하게 중요하고 그의 소설의 심미적 현실성은 이 소설과 그 시대에 관한 다각적 해석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와일드의 유일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과 그의 재판을 학제간 연구의 다층적 해석 방식으로 재조명하며 좀 더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와일드의 문학 세계의 현실적 읽기에 도전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논문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을 조명하였다. 첫째, 와일드 문학 세계 내연에서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그의 문학적 현실성의 일관성을 찾고 그에 대해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소설의 주인공들에 투영된 와일드의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앵글로 아이리쉬로서의 정체성이 영국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비평적 함의에 반영되었음에 대해 논하였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표방하는 개인주의, 쾌락주의는 개인에 대한 묘사를 넘어 세기말 영국의 사회현상의 여러 단면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소설의 역사성의 심미주의적 재현이다.

이 논문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의 주인공들의 ‘존재의 정직성’과 이글턴이 와일드에게서 발견한 “전복적 위트”에 관한 관련성 논의를 통해 그의 문학의 현실 인식

적 풍자성을 와일드의 앵글로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양면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심미적 정치성으로 표현되는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은 이 소설과 법의 외연적 관련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국주의 정치성에 대한 탐구였다. 즉, 와일드가 연루된 1895년의 소송을 되짚어 봄으로써 그의 문학과 19세기 법의 문화사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그의 소설이 문학 외연에서 함의하고 있는 그 현실적 성격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소설인 이유는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했듯이 작가가 소설 밖에서 주장한 부분과 소설 안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 서로 아이러니하게 충돌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와일드와 그의 문학이 품은 현실 비평에 관한 주장과 측면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러니들’은 이 소설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며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소설은 세기말의 소설답게 다음 세기에 시작될 문학 사조들에 대한 예견과 원동력을 제공한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기존 19세기 영국소설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길이가 짧은 점은 울프(Virginia Woolf)의 주요 소설들이 중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점과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중요한 논지의 가능성을 생산한다. 소설에서 헨리 경의 예술과 인생에 대한 형이상학적 언급들은 엘리엇(T. S. Eliot)의 주제들을 연상시킨다. 또한,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타락의 미학과 교훈’은 콘라드(Joseph Conrad)의 주제와 겹치는 듯도 하다. 원래는 극작가였고, 그러한 작가가 유일하게 남긴 짧은 소설 한 권이 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문학적 스타일, 주제들을 예견했다는 점은 후대의 그들이 와일드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18세기, 소설이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19세기에 활발히 꽃피며 현재까지도 주요한 문학 장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가지는 현실 대변성 때문일 수 있다. 즉, 현실 이야기의 문학적 재현, 이것을 읽을 때 독자가 느끼는 공감과 사회적 동의를 세기를 넘어 지속될 수 있는 이 장르의 연속성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의 서사에 의

해 창조되는 장르의 원천적 원리가 어느 소설이건 현실 비평적 영역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면모가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와일드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정치성은 개인주의적이고 사회 비평적이면서도 심미주의적인 면모를 모두 함께 가지고 있기에 특별하다. 또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세기말 영국 사회의 현실, 그 ‘초상’을 소설의 안과 밖에서 모두 비춰 볼 수 있는 소중한 영문학 유산이다.

그의 산문과 소설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면서도 서로 충돌하는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는 점, 소설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전달하는 열린 결말에 대한 느낌은 국내외 비평가들이 그의 문학 세계와 소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다양한 해석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며 그것은 이 소설의 결말처럼 열려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남긴다.

인 용 문 헌

- 박지향.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글방, 2007.
- 『슬픈 아일랜드』.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08.
- 원유경. 「세기말의 불안: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영어영문학 연구』 56.2 (2014): 181-203.
- 조애리. 「빅토리아조 후반 동성애 담론과 윤리적 주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신영어영문학』 56 (2013): 173-194.
- 정명희.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선과 악의 통합」. 『현대영어영문학』 62.2 (2018): 207-31.
- 페터, 풍케. 『오스카 와일드』 한미희 옮김. 서울: 한길사, 1999. Print.
- Abrams, M.H., and Stephen Greenblatt,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Seventh ed. Volume 2. New York: Norton, 2000.
- Baker, J. H.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London: Butterworths, 1990. 14-43.
- Ben-Yishai, Ayelet. *Common Precedents: The Presentness of the Past in Victorian Law and Fiction*. Oxford: Oxford UP, 2013. 1-78.
- Conrad, Joseph. *Heart of Darkness*. New York: Norton, 1988.
- Clayworth, Anna. “Revising a Recalcitrant Patriot: Oscar Wilde’s Irish Reviews Reconsidered.”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38.3 (2002): 252-60.
- Collins, Wilki. *The Woman in White*. 1859-60. The Easton Press, 1993.
- Dickens, Charles. *Bleak House*. 1852-53. Harmondsworth: Penguin, 2003.
- Dolin, Kieran. *Fiction and the Law: Legal Discourse in Victorian and Modernist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1999. 1-44.
- Eagleton, Terry. Introduction. *Saint Oscar & Other Plays*. Oxford: Blackwell, 1997. 1-10.

- Ellmann, Richard, ed. *Oscar Wilde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1969.
- Haslam, Richard. "Revisiting the 'Irish Dimension' in Oscar Wilde's *The Picture of Dorian Gray*."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42 (2014): 267-79.
- Holland, Merlin. *The Real Trial of Oscar Wilde*. New York: Fourth Estate, 2003.
- Joyce, James. "Oscar Wilde: The Poet of Salome." Ellmann. 56-60.
- Kaplan, Morris B. "Literature in the Dock: The Trials of Oscar Wild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1.3 (2004): 113-30.
- Killeen, Jarlath. "The Greening of Oscar Wilde: Situating Ireland in Wilde Wars." *Irish Studies Review* 23.4 (2015): 424-50.
- McCormack, Jerusha. "The Wilde Irishman: Oscar as Aesthete and Anarchist." *Wilde The Irishman*. Cambridge, New Haven: Yale UP, 1998. 82-94.
- McQueen, Joseph. "Oscar Wilde's Catholic Aesthetics in a Secular Age." *SEL* 57.4 (2017): 865-86.
- Pater, Walter. "A Novel by Mr. Oscar Wilde." Ellmann. 35-38.
- Powell, Kerry. *Acting Wilde: Victorian Sexuality, Theatre, and Oscar Wilde*. Cambridge: Cambridge UP, 2009. 1-40.
- San Juan JR., Epifanio. *The Art of Oscar Wilde*. Princeton, NJ: Princeton UP, 1967. 1-73.
- Schramm, Jan-Melissa. *Testimony and Advocacy in Victorian Law, Literature, and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P, 2000. 1-66.
- Shakespeare, William. *The Merchant of Venice*. Ed. John Russell Brown. London: The Arden Shakespeare, 2000.
- Scheible, Ellen. "Imperialism, Aesthetics, and Gothic Confrontation in *The Picture of Dorian Gray*." *New Hibernia Review* 18.4 (2014): 131-50.
- Waldrep, Shelton. "The Aesthetic Realism of Oscar Wilde's *Dorian Gray*."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29.1 (1996): 103-12.

Wan, Marco. "A Matter of Style: On Reading the Oscar Wilde Trials as Literatur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1.4 (2011): 709-26.

Wilde, Oscar. *The Picture of Dorian Gray*. 1891. New York: Fine Editions Press, 1982.

_____. "The Decay of Lying." *Literary Criticism of Oscar Wilde*. Ed. Stanley Weintraub. Lincoln, NE: U of Nebraska P, 1969. 165-96.

Abstract

A Realistic Reading of *The Picture of Dorian Gra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Hwang, Jung Hyun
Yonsei University

Oscar Wilde was skeptical toward literary realism, but *The Picture of Dorian Gray* opens up the possibility for the reader's investigation of the aesthetically realistic aspects of this fiction. In this paper, the subject of multiple realistic approachableness on Wilde and his works is explored in two major ways. The first is to explore the way in which social criticism is conveyed 'inside' the fiction. It does this by identifying Wilde's Anglo-Irish criticism of the British imperial system in the form of the use of 'double-ness' in a number of the characters in the fiction, as suggested in Terry Eagleton's term on Wilde, the "subversive wit." The paper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ideology of hedonistic individualism advocated by Lord Henry Wotton, the mode of 'confessional realism' and 'honesty of being', offers an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moral decline of the English upper class at the end of the Victorian era. The second way is to explore the way in which th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ocial criticism is conveyed 'outside' Wilde's literary world. By means of a collaborative examination of Wilde's literature and the criminal prosecution of Wilde in April-May 1895, the paper suggests a reevaluation of Wilde's fiction that takes account of the prevailing conservative social circumstances of censoring literature and imperial political aspects of the legal system in the end of Victorian era during *The Picture of Dorian Gray* was published.

**Key Words: Social Criticism, Aesthetically Realistic, Imperialism, Subversive
Wi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논문접수일: 2020.01.17

심사완료일: 2020.02.11

게재확정일: 2020.02.27

이름: 황정현(박사과정생, 학문후속세대강사)

소속: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8길 17-2

이메일: yousosweet@naver.com